

세계 경제 동향

● 미국 8월 무역적자 7월 대비 24% 감소 | 2025-11-19 미국 경제분석국

- 미국 경제분석국은 2025년 8월 무역수지 적자가 ^{7월} 782억 불 \rightarrow ^{8월} 596억 불로 23.8% 감소했다고 발표함.
 - 이번 무역통계는 10월 7일 발표 예정이었으나 미국 정부 셧다운의 영향으로 발표가 지연됨.
 - 수출은 2,808억 불로 전월 대비 0.2억 불 상승(+0.1%), 수입은 3,404억 불로 전월 대비 184억 불 감소(-5.1%)
- (상품 수지) 8월 상품 수지는 181억 불 감소한 856억 불 적자를 기록함.
 - 특히, 산업용 원자재(Δ 113억 불)와 소비재(Δ 37억 불)의 수입이 크게 줄어 전체 수입 감소를 주도하였음.
- (서비스 수지) 8월 서비스 수지는 0.5억 불 증가한 261억 불 흑자를 기록함.

| 2025년 7~8월 미국-주요국 상품수지 변화 |

(단위: 100만 불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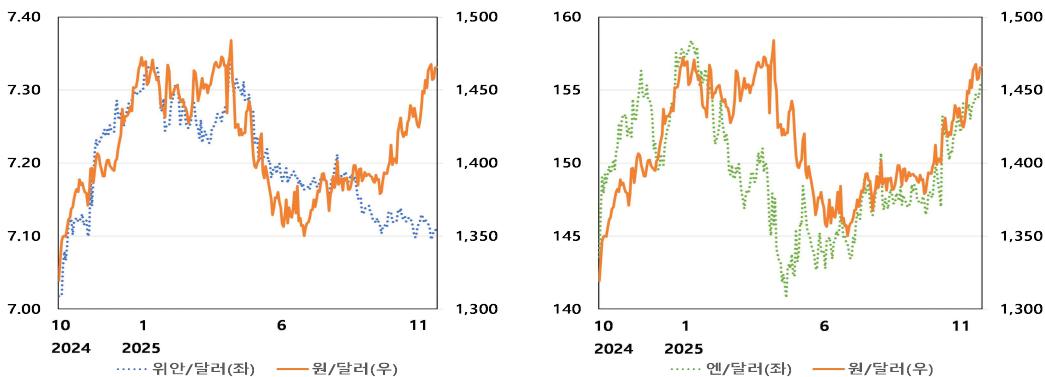
	8월	7월	7월 대비 8월 변화
캐나다	-2,218	-6,004	3,786
멕시코	-15,896	-16,375	479
네덜란드	5,065	4,767	298
스위스	543	-7,912	8,455
중국	-16,861	-17,113	252
일본	-4,936	-5,584	648
한국	-4,427	-5,224	797
베트남	-15,038	-16,636	1,598

국내 경제 동향

● 11월 셋째 주 원/달러 환율 상승 | 2025-11-19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; 2025-11-14 현대경제연구원

- 올해 들어 1,500원대를 위협하던 원/달러 환율은 4월 9일 연중 최고치(1,484.1원)를 기록한 이후 하락하는 듯 했으나, 7월부터 반등하여 지난 11월 18일 1,465.3원까지 상승,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모습임.
- 최근 원/달러 환율의 약세는 달러화 강세 추세보다 빠르며, 주요국 통화에 비해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.
 - 달러화지수(U.S. Dollar Index)는 지난 9월 16일 96.6 기록 후, 11월 11일 99.7 수준으로 약 3.2% 상승함.
 - (같은 기간 환율 변화) 원/달러(+6.1%), 엔/달러(+4.6%), 달러/유로(-1.7%), 위안/달러(+0.1%)

| 주요국 환율 추이 |





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● 일본 농림수산성 2025년산 쌀 수급 전망 발표 | 2025-11-14 농림수산성

- 농림수산성은 2025년산 쌀(현미 기준) 생산량을 748만 톤, 수요량을 697~711만 톤으로 제시하며, 최근의 공급 부족 상황 이후 처음으로 생산이 수요를 상회할 전망이라고 발표함.
 - 생산량은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, 2026년 6월 말 민간 재고는 215~229만 톤으로 증가할 전망
 - 수요는 최근 700만 톤대로 회복, 고온 피해에 따른 도정 수율 저하와 외국인 관광객·가계 구매 증가 등이 배경
- 한편, 이번 수요 전망부터는 새로운 밥쌀 수요 예측 지침이 적용됨.
 - 생산 전망은 재배 의향 면적, 최근 단수, 8월 중 수량 예측 등을 반영해 범위형으로 제시
 - 수요 전망은 인구 감소, 정미 기준 소비량, 관광객 수요, 도정 수율 등을 고려해 정미 기준으로도 산정

● FAO, 기후 재해로 농업·식량안보 취약성 확대 경고 | 2025-11-14 FAO

- FAO는 33년간 전 세계 농업 부문에 재해 피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며, 기후 변화가 생산과 식량안보 전반의 구조적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함.
 - 1991~2023년 동안 누적 피해 3.26조 달러
- FAO는 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농업 분야의 재해 대응이 기존의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및 대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함.
 - 인공지능, 원격탐사, 조기경보, 디지털 보험 등을 활용한 위험 진단과 선제 대응 체계 발달
- 다만 디지털 접근성과 인프라 격차가 지속될 경우 국가 및 지역 간 대응 역량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함.
 - 농촌·취약계층의 디지털 서비스 접근 한계와 국가 단위 디지털 농업 전략·데이터 체계 구축 필요

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● 2025년산 쌀 최종생산량 353만 9천 톤으로 소폭 감소 | 2025-11-13 농림축산식품부

- 농식품부는 2025년산 쌀 최종생산량을 353만 9천 톤으로 확정했으며, 이는 10월 전망치(357만 톤)보다 3만 5천 톤(-1%) 감소한 수준이라고 발표함.
 - 9월 강우, 일조량 부족, 깨씨무늬병 발생 등이 복합 작용하여 최종 생산량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분석
 - 생산단수는 522kg/10a로 전년과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
- 수확 지연은 대부분 해소되었고, 산지·소비자 가격은 하락하였으나 전년·평년 대비 높은 수준
 - 벼베기 진행률: (10.28) 66.8%(전년 대비 △15.1%p) → (11.04) 90.3%(△3.9%p) → (11.11) 98.2%
 - 산지쌀값(20kg): (10.05) 61,988원 → (10.15) 58,258원 → (10.25) 57,403원 → (11.05) 56,954원
 - 소비자쌀값(20kg): (10.05) 68,435원 → (10.10) 67,351원 → (10.30) 65,118원 → (11.10) 64,804원
- 정부는 내년 1월 발표 예정인 쌀 소비량을 반영하여 쌀 수급을 재점검하고,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.
 - 벼 매입가, 산지·소비자 가격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·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수급관리를 추진할 예정